

# 제15회 |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우리 사회 여성지도력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한  
한국여성지도자상이 올해로 15회를 맞았습니다.  
여성권의 향상에 헌신해온 여성지도자를 시상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The 15th*  
*Korea Women's Leadership Award*



**대 상** 최영애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이사장  
**젊은지도자상** 이미영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표



2017년 11월 2일(목) 오후2시, 전국은행연합회관



문의 02-774-9702

##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전주 063.224.5501
경주 054.772.8141	서울 02.3705.6000	제주 064.711.8322
고양 031.919.4040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명 02.895.1966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광양 061.762.0012	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광주 062.609.1300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순천 061.744.7990	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논산 041.736.7393	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대구 053.652.0070	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6.2547
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권역협력부 063.462.4491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 한국 YWCA

2017년 10월호  
October  
Vol.544

**기획** YWCA 정책협의회  
젠더관점으로 지역운동 강화하자  
활동가 인식조사를 통해 본 성평등운동

**이슈**  
원자력, 전문가 그리고 거짓말

**칼럼**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과 무릎 꿇은 엄마들

**문화**  
영화 <아이 캔 스피크>가 말하는 기억의 정치



(사)한국YWCA연합회

# 여성들을 위한 최초의 전당 '한국YWCA회관'



한국YWCA회관의 과거(왼쪽)와 현재(오른쪽) 모습



1934년 서울 서대문구에 있던 한옥 회관



1967년 한국YWCA회관 기공식

서울시 명동 1가 1번지. 한국 최초의 여성단체로 1922년 설립된 YWCA가 자리 잡은 곳이다. 현재 한국YWCA연합회와 서울YWCA가 위치해 있다. 특히 미래세대에 전달할 가치가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인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한국YWCA회관은 근대여성운동의 전당으로 상징된다. 한국YWCA회관 입구 왼쪽 벽에는 세 명의 여인상 부조가 있다. 창립자 김활란, 김필례, 유각경을 상징하는 여인들은 YWCA의 세 가지 체계인 지(知), 덕(德), 체(體) 구현을 뜻하는 비파, 향유, 햇불을 들고 있다.

설립 초기 YWCA는 건물을 빌려 쓰다가 1934년 서울 서대문구 한옥에 첫 자체 회관을 마련했다. 일제강점기 간판을 내리는 비운을 겪은 YWCA는 해방 이후 1946년 지금의 명동에 낡은 목조건물 두 채를 매입했다. 그러나 확장되는 활동에 낡은 회관은 좁았고 새 회관 건축에 들어갔다. 회원들의 정성어린 협력과 박에스터 고문총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기공식 1년여 만인 1968년 9월 새 회관을 완공했다. YWCA는 국제사회에 한국 YWCA 상황을 알리며 회관건축을 위한 각계 지원을 모은 노고에 감사의 뜻으로 1969년 1월 새 회관을 '박에스터 기념관'으로 명명했다.

명동 한복판 1,200평 금싸라기 땅에 여성들이 힘을 모아 세운 한국YWCA회관, 서울YWCA회관은 여성들을 위한 최초의 전당을 만들기 위한 선배들의 땀과 눈물이 일군 YWCA 보물이다.

## 2017. 10 한국YWCA



**표지이야기**  
전국 회원YWCA 대표와 연합회 실행위원 등이 9월 21일 열린 2017년 한국YWCA 정책협의회에서 탈핵 노래에 맞춰 울동을 하고 있다

### 2017년 11월 주요일정

- 11월 2일**  
제15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 11월 10일**  
제4분기 YWCA 여성폭력 시설장 워크숍
- 11월 13일**  
YWCA·YMCA 기도주간 연합예배  
3·1운동 100주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11월 17~18일**  
다래교실 비전페스티벌
- 11월 30일**  
YWCA 창립95주년 '희망나눔콘서트'

**제53권 제7호 통권 544호**  
2017년 10월 25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이명혜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백수경·백혜진·신선·정린·정선경  
조한나·이경순·최수경·황혜숙  
편집 박은실·신미희·문윤희·손지수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모닝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산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 K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모든 평화는 한쪽의 양보에서 시작한다 | 장미란
- 05 **말씀 묵상** 영성과 성찰 | 김경은
- 기획 '2018~2019 YWCA 정책'**
- 06 **기획①** 2017 정책협의회 '젠더관점으로 지역운동 강화하자' | 편집실
- 10 **기획②** 활동가 성평등 인식조사를 통해 본 YWCA 성평등운동 | 편집실
- 12 **이슈①** 원자력, 전문가 그리고 거짓말 | 남태제PD
- 14 **이슈②** YWCA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캠페인 | 편집실
- 16 **95주년 특별기획** YWCA 여성평화순례 '청년이 걸어가야 할 평화의 길' | 최선화
- 18 **강연** '한라에서 백두까지' 5차포럼 '북한의 시장화, 체제변화 가져오나' | 신미희
- 18 **칼럼**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과 무릎 꿇은 엄마들 | 장민희
- 22 **인터뷰** 시집 출간한 세월호 희생자 어머니 유인애씨 | 문윤희·이혜린·손지수
- 24 **이달의 현장①** 헌법개정과 여성대표성 '입다물면 아무 것도 못한다' | 문윤희
- 26 **이달의 현장②** 돌봄임원 워크숍 '가사근로자법 이번엔 이뤄질까' | 이희정
- 28 **원로에게 듣는다** 김숙희 연합회 증경회장 | 편집실
- 30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영화 <아이 캔 스피크>가 말하는 기억의 정치 | 이윤숙
- 32 **연합회 소식**
- 34 **회원YWCA 소식**

# 모든 평화는 한쪽의 양보에서 시작한다



장미란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평화·통일위원장

10월로 접어들었지만 여름 내내 계속된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립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불안에 시달리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무력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남북 간의 신뢰 형성은 점점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가만히 귀기울여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같습니다. 북한 주민을 미움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평화는 한쪽의 양보에서 시작합니다. 손해 보아도 좋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저도 좋다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전쟁에 저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늘한 적대감을 표현하는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껴안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면 위험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나 군사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은 우리들은 달라야 합니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기 위해 우리가 먼저 다가서야 합니다.

YWCA는 오래 전부터 한국 어린이들의 미래 동반자가

될 북한 어린이들에게 분유 보내기 운동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저 내 자식만 잘 먹이고 잘 키우면 그만이라 약하고 여리고 다치기 쉬운 모든 생명을 보살피겠다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시작한 운동입니다. 정성껏 쓴 사랑의 편지를 유리병에 넣어 바다 파도 위에 띄워 보내는 심정으로 전국 회원YWCA에서 모은 기금으로 마련한 사랑의 분유를 북한 어린이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대로 고조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두시는지 모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시간에 한반도의 문제가 풀릴 날이 올 것을 믿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YWCA는 100주년을 향해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순례를 시작합니다. 남과 북 사이에 마음의 문이 열려 인간적인 따스함을 나눌 그날을 꿈꾸며 평화의 발길을 내딛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마태복음 5장 9절)

# 영성과 성찰

## 시편 139편 2~4절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새번역 성경)



김경은

목사·장신대 교수

영성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과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도 포함합니다.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독교 영성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즉 기도가 중요합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를 통해 마음을 알려드려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을 좋아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성찰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찰은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여 살피는 것이고, 자신이 한 일을 깊이 되돌아보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에 임재하시고 활동하셨는지 주님과 함께 되돌아봅니다. 그 과정은 다섯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깨닫고 오늘 하루 중에 받은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순간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라도 성찰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의식하게 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찰기도는 단순히 하루를 기억하거나 자기분석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해 성찰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경험이나 사건, 생각과 감정에 주목해서 살펴봅니다. 흐름이 멈추는 어느 순간, 떠오르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 감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살펴봅니다.

네 번째는 ‘용서를 구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생각과 행동을 회개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하심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과 내일을 위해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고백하고 필요한 은혜를 구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성찰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욱 사랑스런 존재로 성장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 젠더관점으로 지역운동 강화하자 탈핵생명운동, 성평등운동 중점 전개

신미희·문윤희·손지수  
홍보출판팀

### 1922장학금 첫 전달식으로 시작

2018~2019 한국YWCA 운동정책을 세우기 위한 2017년도 정책협의회가 9월 21일(목) 서울YWCA 강당에서 열렸다. 회장, 사무총장을 포함한 전국 52개 회원YWCA 대표와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실무활동가 등 194명이 참석했다.

이명혜 연합회 회장의 개회예배로 시작한 정책협의회는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YWCA 1922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창립 95주년을 맞아 청소년, 청년 양성을 위해 신설한 1922장학금은 올해부터 100주년이 되는 2022년까지 운영된다. 첫 장학금은 Y-틴 중앙임원 9명, 대학·청년Y 중앙임원 5명과 운영위원 17명에게 수여됐다. 이번 전달식에는 Y-틴 북부지역 정수희 총무,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이혜린 총무와 정하연 운영위원이 대표로 참석해 장학금을 받았다.

이어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이 2016~2017 정책평가와 2018~2019 정책안을 설명하고, 중점운동 정책이해를 위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YWCA 탈핵생명운동 3단계 과제로 제안된 '탈핵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자립 지역사회 만들기'는 박진희 동국대 교수가 발표했다. 다음으로 Y아카데미 위원인 이숙진 이화여대 교수가 'YWCA 활동가 성평등 인식조사를 통해 본 YWCA 성평등운동'을 중심으로 YWCA 성평등운동 2단계 과제를 발표했다.

YWCA 운동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영리단체 세무실무 특강도 진행됐다. 사회적경제 법센터 더함 대표인 양동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인 법무법인 동천 정순문 변호사가 비영리단체로서 YWCA가 세무·회계, 후원 등 기부금품 모집·운영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상세히 설명했다.

전국 회원YWCA 대표 등 참석자들은 주제발표와

##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탈핵으로 생명평화, 성평등으로 정의

탈핵생명운동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청(소)년운동
탈핵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자립 지역사회 만들기	여성이 참여하는 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평화교육과 민간교류 확대로 평화사회 만들기	청소년이 삶의 주제로 서는 행복한 사회 만들기

2018~2019 정책안을 중심으로 그룹토의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각 회원YWCA 우선 실천과제를 정하고 전국 중점운동 공동사업을 제안했다. 마지막 순서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거듭 촉구하고, 탈핵세상을 향한 YWCA 결의를 다지는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퍼포먼스를 펼쳤다. 노래 '항해'에 맞춘 탈핵울동단 공연과 함께 모든 참석자들이 '탈·핵·에·너·지·전·환' 글씨가 새긴 공을 연합회장, 5부 지역위원장,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장에게 전달해 탈핵세상을 소망하며 정책협의회 막이 내렸다.

### 4대 운동으로 통합, 집중하자

이날 정책협의회 주요 내용은 2016~2017 정책평가와 2018~2019 정책안, 그룹토의 결과로 요약할 수 있다. 2016~2017 정책평가에서 회원YWCA가 5대 운동정책

을 실행한 성과로 △탈핵생명운동 : YWCA 내부의 긍정적 인식변화, 고리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검토 등 정부의 탈핵정책 공표, 불의날 탈핵캠페인을 통한 시민인식 변화 △성평등운동 : 동일노동동일임금 캠페인을 통한 이슈제기와 시민공감대 형성, 여성의제 대선후보 전달 등 정책제안, 성인지프로그램을 통한 젠더감수성과 양성평등가치 공감대 형성, 여성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성인지거버넌스 구축 △청소년운동 : Y-틴, 대학·청년Y를 통한 청소년·청년회원 활동 확대, 대학·청년Y 대선 청년정책 제안 등 당사자 운동 활성화, 지역내 YWCA 청소년활동의 긍정적 인식 증진 △평화통일운동 : 북한어린이돕기 분유보내기운동을 통한 평화통일 인식증진 △돌봄정의운동 : 저소득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생명숲돌봄센터 개소, 돌봄회



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원 역량강화, 돌봄노동가치 존중되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이 꼽혔다. 그러나 회원YWCA는 운동정책별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5대 운동을 지역운동으로 정착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평가를 통해 2018-2019 정책으로는 기존 5대 운동을 4대 운동으로 통합하고 탈핵생명운동과 성평등 운동을 중점운동으로 집중하자는 안이 제안됐다. 즉 탈핵생명운동,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청(소)년운동을 4대 운동으로 펼치고 돌봄정의운동 과제는 성평등 운동 영역과 통합하며 돌봄회원사업 등은 운영정책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탈핵생명운동과 성평등운동은 운동의 지속전개, 사회 영향력 극대화를 위해 YWCA 2단계 중점운동으로 펼치되 지역운동과 회원운동이 강화되는 세부과제를 선정

해 추진할 것이 제안됐다. 특히 한국YWCA 운동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전략이 강조됐다.

한국 최초의 여성단체로서 YWCA 정체성에 기반한 '젠더관점'으로 운동을 특화하고, 회원운동체로서 YWCA 존재기반에 따라 '지역운동'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젠더관점의 운동이란 성인지적 감수성을 갖고 문제를 정의하고, 정책수행 과정에서 여성주체의 참여를 강조하며, 정책실행 결과가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이날 그룹토의에서 참석자들은 각자 특성과 역량에 맞는 회원YWCA별 우선 실천과제를 공유하고, 전국 중점운동으로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공동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전국 공동사업 제안을 참조로 신는다. 



▲청년으로 구성된 탈핵운동단이 무대에 올랐다.

◀이명혜 회장과 5부 지역위원장, 대학·청년Y 전국 협의회장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2017 한국YWCA 정책협의회 그룹토의 결과

### 탈핵생명 전국공동사업 제안

- YWCA 햇빛발전소 설립, 햇빛발전소협동조합 구축
- 회원YWCA 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
- 가정용 태양광 패널 달기, 태양광발전소 건립, 전등 LED로 교체하기 캠페인
- 지방자치단체 재생에너지정책 모니터링(에너지위원회 및 정책평가 참여)
- 지방선거 후보자 햇빛발전소 공약사항 요구
- 에너지자립 마을 만들기
- 탈핵강사 양성교육 체계화 : 탈핵씨앗강사를 씨앗, 즐기, 열매 단계별 교육으로 확대
- 탈핵시민교육 실시
- 탈핵-에너지·생명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즐거운불편운동
-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관련 방송제작 요청
- '원전말고 안전' 차량스티커 제작, 100만명 부착운동
- 탈핵운동 로고송 제작
- 노후된 한빛원전 폐쇄운동
- '탈핵' 용어를 '재생에너지 확대운동'으로 명칭변경

### 성평등 전국공동사업 제안

- YWCA '성평등' 개념 재정립과 쉬운 용어로 변환
- 지역위원회별 '찾아가는 성평등 아카데미' 교육
- 청소년·대학청년 대상 성평등 아카데미 운영
- 영유아·학부모 대상 성평등 표준모듈과 교재 개발
- 회원YWCA 성평등운동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 성인지 씨앗강사 양성교육 실시
- 성평등의식 확산 위한 SNS, 미디어 모니터링
-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
- 영역별 성평등지수 분석, 성인지예산 분석
- 여성정책담당 공무원 성평등 인식조사 발표
- 지방선거 후보자 성평등정책 매니페스토 운동
- 지방선거 후보자 젠더의식 체크리스트 발표
- YWCA 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한 지역후보자 발굴
- 광역단체 여성가족연구원과 협력, 여성 시의원 젠더교육
- 성차별적 교회문화 개혁운동과 연대
- 동일노동동일임금 인식확산과 법제화 캠페인
- 평화협정을 위한 기도운동과 캠페인

기타

시대에 맞는 소비자 권리운동 활성화, 노인학대 예방활동, 가사돌봄서비스 국가지원 제도화, 씽크머니 금융경제교육 확대, Y-틴 민주시민토론회 실시 구성

# YWCA는 성평등에 기여한 바가 없다?

신미희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부장



YWCA는 지난 5~6월 전국 YWCA 자원활동가, 본부와 부속시설 실무활동가 등 800명을 대상으로 '한국YWCA 활동가 성평등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YWCA 성평등운동 전략과 정책과제를 세우는데 밑바탕이 될 조사결과를 요약해 심는다. 이번 조사연구는 각지역 생명비전연구소 위원장이 연구책임, Y아카데미 위원인 이숙진 이대 교수가 집필책임 맡았다.

이숙진 이대 교수가 9월 21일 2017 YWCA 정책협의회에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성평등운동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 성평등 인식 기대치보다 낮았다

활동가 성평등 인식조사는 YWCA 회원들이 성평등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평등 정책의 우선 순위로 무엇을 삼고 있는지, 여성운동 주체로서 YWCA 기여도와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성평등 인식은 여성지도력, 교회 여성지도력, 성역할, 성윤리, 가정폭력·가정내 민주화, 사회이슈 등 20개 문항을 통해 조사했다. 또한 역할별, 연령별, 결혼상태별, 활동기간별 조사로 집단별 인식정도를 측정했다. 20개 문항 전체 평균은 77%로 나타났다. 여성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YWCA 활동가의 성평등 인식은 기대치(90% 이상)에 비해 낮았다.

가장 높은 성평등 인식을 보여준 문항은 교회 안에서의 성평등 문제와 관련 있다. 여성지도력과 가정에서의 성평등 인식도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여성지도력에 대한 성평등 인식이 다른 문항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은 YWCA가 그동안 여성지도력의 산실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룹별로는 본부 실무활동가의 성평등 인식이 가장

높았고, 활동기간이 길수록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성평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점점 높아지는 초혼 연령, 여성의 비혼 비율 급증과 출산율 급락, 이혼율 증가 등 우리 사회 변화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연애, 결혼, 출산을 비롯해 희망까지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른바 'N포세대'로 불리는 젊은 여성들 삶의 조건에도 원인이 있다.

## 기독교 여성단체로서 교회개혁에 관심 가져야

50~60대 이상 자원활동가들은 상대적으로 성평등 인식이 낮았지만, '교회내 성평등 인식'은 높았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20~30대 본부 실무활동가들은 교회내 정치와 활동에 가장 모순적인 답변을 했다. 원론적 차원에서 성평등은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 사안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활동에 무관심하거나 교회조직 구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여성운동의 대표적 공간이었다. YWCA가 기독교 여성운동 단체라면 교회내 성평등 문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YWCA 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이 활동가 성평등 인식조사 결과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

한국교회는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 YWCA를 비롯한 기독교 여성운동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성평등을 향한 한국교회 개혁을 견인해야 한다. YWCA가 그동안 교회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온 것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한국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고착되면, YWCA 활동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 탈핵, 대안교육, 평화통일도 성평등운동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YWCA 활동가들의 인식평균은 77%였으나 이들이 보는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은 45.4%였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심각한 성 불평등 사회라고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차별 정도가 가장 심하다고 지목한 문항은 비정규직에서의 성차별과 승진에서의 불평등 문제였다.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 여성친화도시 > 여성할당제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인지 예산의 순서로 높은 인식도를 보여주었다.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할당제 등은 YWCA 중점 운동 주제였는데도 인식 정도가 낮았다.

성평등 사회가 되기 위한 선결과제를 묻는 성평등 정책 우선과제 조사에서는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 가사·육아지원 체계 마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경제

구조 변화로 기혼여성의 취업이 불가피해졌지만 가족 내 성역할 구분 인식과 역할수행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YWCA 성평등운동 기여도에 대한 조사는 활동가들이 성평등운동 관점에서 YWCA를 평가하는 것인데 여성단체로서 YWCA에 대한 자체평가는 평균 40%로 상당히 낮았다. 부속시설 실무활동가 > 본부 실무활동가 > 자원활동가 순으로, 20대 > 30대 > 60대 > 40대 > 50대 순으로 우리 사회 성평등에 YWCA가 기여한 바가 별로 없다고 답했다.

한국 성평등운동에 큰 기여를 해온 YWCA 활동에 대한 활동가들의 매우 낮은 평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YWCA 활동이 여성문제에만 주력하지 않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페미니즘은 다양한 억압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YWCA의 대표적인 정책인 탈핵, 대안교육, 평화통일, 성인지, 여성폭력예방, 돌봄 노동권 확보 등은 모두 여성문제와 깊이 연동된 문제다. 분단체제에서 평화통일 정책을 과제로 설정한 것은 그 어떤 진보적인 여성단체보다 앞선다. 활동가들이 YWCA가 우리 사회 성평등에 기여한 바가 별로 없다고 평가한 것은 자기정체성과도 연관이 있다. 앞으로 활동가들의 운동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주한규(사진 가운데)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이 7월 5일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속의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많은 숙제도 남겼다. 정보 불균형과 공정성 논란이 대표적이다. 정보 비대칭이 심한 원자력 분야에서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핵발전과 핵재처리 문제를 깊게 파헤쳐온 남태제 시사다큐멘터리 PD는 취재현장에서 만난 원자력 전문가들의 실체는 '팩트'와 달랐다고 증언한다. 전문가의 말이라고 믿기 어려운 그들의 무리한 왜곡과 거짓은 공론화 과정에서도 되풀이됐다는 것이다. 핵과 에너지, 환경 등 이슈에 천착해온 남PD는 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목적자들> 원전시리즈를 연출했다.

**원전을 선택한 주민들의 슬픈 사연**

원자력발전 옹호론의 대표적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정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외부인이고 지역주민들은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부지가 있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에 가봤냐고 묻자 그는 주장을 이어가지 못했다. 신리마을 주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청원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

마을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신고리 3·4호기가 있다. 1998년 3·4호기 건설계획이 발표되자 주민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했으나 막지 못했다. 현행법상 원전 인근 거주금지구역은 반경 700m, 신리마을은 이주대상이 되지 못해 원전을 ‘끼고’ 살아야 했다. 마을은 점점 폐쇄해졌다. 어장은 나빠졌고, 횃집과 민박집을 찾던 낚시꾼들도 줄어갔다. 집과 땅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았다. 원전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불안감은 높아갔다. 그들이

원전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더 가까운 곳에 원전을 유치해 거주금지구역에 들어가는 것뿐이었다. 이런 사연을 생략하고 다수 언론은 ‘주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찬성한다’고 결론만 말한다. 마치 원전이 안전해서 혹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때문에 환영받는 듯. 실제로는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건설허가 나지 않았는데 공정률 18.8%**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여부로 격론이 벌어지던 2016년 6월 초 신고리 5·6호기 건설예정 부지를 찾아갔다. 그런데 이미 ‘수중 취배수 구조물’ 축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바닷물을 원전에 냉각수로 공급하고, 원전가동으로 뜨겁게 데워진 물을 바다로 내보내기 위해 원전과 바다를 연결하는 터널과 취배수구를 만드는 공사였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불법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허가 전에 할 수 있는 합법적 공사라고 답했다. ‘상식 밖’의 법

이 보호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허가가 나기도 전에 종합공정률 18.8%를 달성했다. 그리고 지금은 종합공정률이 30%가 되었다면서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건설이 기정사실화되었는데 왜 건설허가 심의를 할까? 조석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012년 1월 20일 한국 원전수출산업협회 신년인사회에서 한 강연이 실감나게 다가온다. “우리 원자력계가 일하는 방식이 있지 않는가. 허가 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수리비용으로) 7천억 돈부터 집어넣지 않았나. 그리고 허가 안내주면 7천억 날린다고 큰일 난다고 할 것 아니냐.” 공정률 30%, 매몰비용 2조원을 이유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끝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야구공과 각설탕’의 교묘한 왜곡**

원전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사용후핵연료, 즉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다. 사용후핵연료에는 방사능이 매우 강하고 엄청 뜨거운 핵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 인간 생활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세슘과 스트론튬은 300년, 플루토늄과 마이너액티나이드는 10만년간 방사능이 유지된다.

정범진 교수는 이를 ‘야구공과 각설탕’에 비유한다. ‘우리나라 원전 25기의 사용후핵연료 누적량이 약 1만 5천톤인데 국민 1인당으로 나누면 야구공 크기밖에 안된다. 생산한 에너지에 비해 아주 적다. 지금 기술수준으로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국민 1인당 각설탕 크기로 줄여 처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지다. 얼핏 들기론 환상적이지만, 교묘한 왜곡과 기만이 숨어 있다.

국민 1인당 야구공 크기로 말하는 것부터 의미 없는 말장난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집에서 사용후핵연료를 폐기처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어차피 한 곳에 모아서 처분해야 하고, 그러면 다시 1만 5천톤이 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를 깊은 땅 속에 묻어 안



건설허가도 나기전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 수중취배수구조물 축조공사

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어디에도 없다. 원전 운영 30개국 중 핀란드만 영구처분장을 만들고 있으며, 스웨덴은 부지를 선정했을 뿐이다. 원전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원전을 운영한 미국도 영구처분장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다.

‘각설탕 크기로 줄이는 기술’은 이명박 정권 이래 정부와 원자력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핵재처리 공법을 말한다.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서 195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한 파이로프로세싱은 아직도 ‘고속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 냉각재 소독이 공기와 접촉하면 불이 나고, 물과 만나면 폭발하기 때문이다. 설령 개발된다 한들 폭발과 화재 위험이 있는 고속로 75기(원자력연구원 추산)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 원자력연구원은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면적을 1/100로 줄일 수 있다면서 미국 에너지부 자료로 검증되었다고 선전해왔다. 그러나 미국 에너지부는 그런 자료를 낸 적이 없고, 미국 원자력학회 저널에 실린 논문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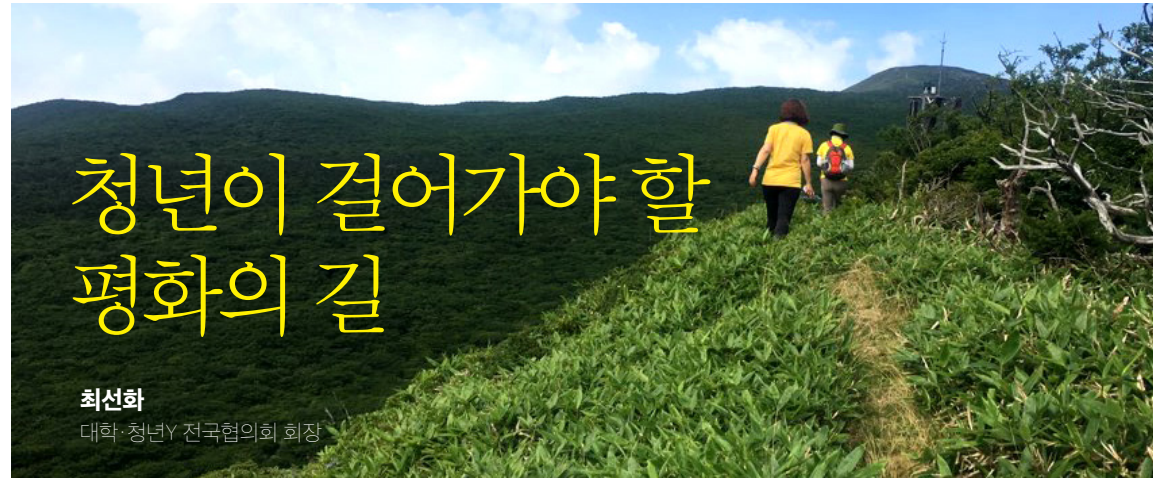
사용후핵연료는 핵발전의 가장 약한 고리며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탈핵’으로 갈 수 밖에 없기에 이른바 ‘원자력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무리한 왜곡과 거짓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탈핵, 탈원전의 합리적인 공론화를 위해서는 ‘팩트’(fact)로 검혀하게 소통해야 한다. 뉴스타파 <목적자들> 원전 시리즈를 통해 더 많은 팩트를 접하기 바란다.

# 탈핵행진은 계속된다

## 편집실

한국YWCA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시민들에게 탈핵의 필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매주 화요일마다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불의날 탈핵캠페인'을 비롯해 ▲10월 12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시민대표참여단 호소 기자회견(사진①) ▲10월 10일~14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탈핵자전거원정대 자전거행진(사진②⑩) ▲10월 12일~15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의 올바른 결정을 위한 YWCA 기도순례(사진⑦⑧) ▲10월 16일~20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촛불집회(사진③④⑤⑥) 등에 참여했다. 또한 대전YWCA는 10월 10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 100회 불의날 탈핵캠페인(사진⑨)을 진행했다. 모든 원전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YWCA 탈핵행진은 계속된다.





### 평화의 여정을 시작하다

한국YWCA 설립 95주년을 기념하고 100주년을 향한 평화비전 수립과 평화운동 확산을 위해 YWCA 회원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평화순례를 떠난다. 올해 한라산을 시작으로 지리산, 태백산, 설악산, 금강산, 백두산까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내외 여성들이 매년 모여 산을 오른다. 그 첫 여정을 2017년 10월 26일(목) 제주 한라산에서 18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시작한다.

YWCA는 5개 지역위원회에서 추천된 20명의 회원, 대학·청년회원 3명, 북한이탈여성 6명, 평화·통일위원회 위원 등 33명으로 평화포럼단을 꾸리고 매달 포럼을 열어 평화순례를 준비해왔다. 2017년 1기 평화포럼단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모두 5차례 포럼을 진행했다. 그동안 선입견을 갖고 바라봤던 북한을 평화, 통일 전문가들의 강연과 포럼단 토론을 통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사실 평화를 위한 YWCA의 여정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 1990년 '세계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 캠페인'에서 시작됐다. 지금의 평화순례로 이어진 YWCA 평화운동은 우리 사회에 평화인식을 확산하고 통일운동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다.

### 우리는 왜 산을 오르는가

그럼 우리는 왜 산을 오르는 것일까? 한반도 최남단에 있는 한라산과 최북단에 있는 백두산을 등반하며 끝과 끝이 하나로 이어져 통일을 이룬다는 의미일까?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산을 오르는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의문을 품은 채 이유를 생각해 봤다.

“산은 우리가 올라간다고 정상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이 우리를 받아주어야만 오를 수 있다.” 산악인 엄홍길의 말이다. 통일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남북이 서로를 정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날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닐까? 산이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받아주기를 기도하면서 말이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을 갖고 산을 오를 것이다. 정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 수도, 산의 풍경을 즐길 수도,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할 것이다. “산에 오르기 좋았다”라고. 통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의 생각은 각자 다를 것이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정상에 오른 사람들처럼 “통



최선화 회장(왼쪽)과 구광모 청년(오른쪽)이 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YWCA 여성평화순례 엠블럼

일이 되길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길 바라면서 YWCA는 산을 오르는 평화순례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 북한 청년을 만나 보니...


“북한 청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습니다. 탈북 청소년과 청년들이 많다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탈북 친구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나는 어느 날 평화포럼단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 북한이탈주민인 김길선 선생님이 탈북청년과 연결해주면 만나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서울에 있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19살 여학생을 소개해주었다. 북한 친구를 만난다는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한편으론 나도 모르게 선입견으로 상처를 주진 않을까 혹여 그 친구도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을까 걱정됐다.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온갖 걱정을 했다. 그리고 그런 걱정을 한 내가 바보가 된 듯 정작 북한 친구는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아이들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고, 어느 대학을 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여고생이었다.

그럼 우리 청년들은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했다. 통일연구원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했는데 통일찬성 응답비율이 해마다 줄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60%를 넘던 찬성률이 올해는 57.8%로 떨어

졌다. 또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분단유지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인식은 주변 친구와 대화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다.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왜? 굳이 통일해야 돼?”라고 답하는 친구들이 많다. 지금 청소년, 청년들에게 북한은 한민족이기보단 북쪽에 위치한 나라, 핵 실험을 하는 나라, 도와주고 싶은 나라 정도일 것이다.

한반도는 휴전상태,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임을 알고 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전쟁을 막는 길은 평화밖에 없다. 평화는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 없이 평온한 상태를 말한다. 내가 생각하는 평화는 같은 길을 손잡고 걸어가는 것, 서로를 이해해주며 다름을 존중해주는 것이다.

올해 8월 대학·청년Y 전국회원대회에서 2018년 중점 운동 주제를 무엇으로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었다. 첫 번째로 페미니즘, 두 번째로 평화통일을 꼽았다. 의외의 결과였다. YWCA 청년들이 평화통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번 평화순례에는 4명의 청년이 참가하지만 청년들이 평화순례 바통을 이어 받아 주도적으로 평화의 길을 걷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 평화와 통일의 주역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이기 때문이다. 

# 북한의 시장화, 체제변화 가져오나

신미희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부장



YWCA 95주년 기념사업 '여성평화순례 : 한라에서 백두까지' 준비를 위한 <길위의 평화학교 한라에서 백두까지> 5차 포럼이 9월 14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김영희 한국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이 '북한의 시장화와 체제변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북한이탈주민 출신 경제학 박사인 김팀장은 경험과 조사분석 자료, 생생한 사진을 바탕으로 북한 경제상황을 상세하게 전했다. 북한 정준택원산경제대학을 나온 김팀장은 2002년 한국에 들어왔다. 2007년부터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 경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 이날 강의내용을 요약해 실는다.

김영희 한국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이 북한의 시장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시장은 당국의 묵인과 새로운 경제정책에 의해 점차 확대, 발전되었다. 특히 2014년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5.30담화'를 계기로 계획부문은 점차 시장에 침투되고 있다. 일종의 경제개혁 조치로 기업에 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인세관리권 등 자율성을 부여하고, 평균주의를 없애는 대신 일한 만큼 보수를 받도록 했다.

북한 시장화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국가계획 경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시장화가 크게 진전된다면 북한이 계획경제를 포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 사회통합, 경제통합 등 남북통합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비공식 시장 확대와 국영기업의 시장화

북한의 시장화는 공식 소비재시장 확대, 비공식 5대 시장 형성, 지역시장 연계시스템, 국영기업의 시장화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의 공식 상설시장은 소비재시장으로 남한 사람들이 부르는 '북한의 종합시장'을 말한다. 200여개 수준에서 늘어나 현재 400~500여개로 추산된다. 예전엔 식품이나 의료원자재 등 소비재용만 거래됐는데 이젠 생산수단용, 건설용도 거래되고 있으며 수요 공급이 계속 늘고 있다.

북한의 비공식 시장은 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개인들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시장이다. 소비재시장, 생산재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주택시장을 5대 시장이라고 한다. 노동력이 상품화된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던 북한에 노동력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노동시장까지 생겼다는 것은 북한 시장화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사례다.

소비재시장의 경우 시장에서 장사를 하려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모두 국가예산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을 자꾸 늘려 세금을 거둔다.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거둘 수 없는데, 어떤 지역은 길거리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걷는다고 한다.

북한에 자영업자나 수공업자가 생기면서 생산재시장도 생겨났다. 예전엔 개인수공업자가 소규모였다면 지금은 생산품 종류도 다양하고 규모도 커졌다. 개인이 공장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어선도 있다. 북한에서 시멘트는 개인이 생산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이 주택건설을 하는 경우 시장에서 나온 시멘트를 구입해서 이용하는데 국가가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용인해주는 것이다.

거의 모든 물건의 종류가 거래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북한 사람들은 '고양이 뽀 빠고는 다 있다'고 표현할 정도다. 2002년만 해도 남한 물건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없어서 못 판다고 한다. 북한 친지에게 한국 중고 물품을 한 트럭 보내줬는데 1주일 만에 동났다고 한다. 2011년 중국에서 친지를 만날 때는 남한 전기밥솥을 사다달라고 했다. 잠곡밥도 잘 되고, 한국말이 나와서 인기라고 했다. 경제환경이 좋아져 전력공급이 잘 되니 사람들이 남한 전기밥솥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 휴대폰과 사금융이 바꾼 시장시스템

금융시장에는 담보가 등장했고, 예대마진율을 통한 금융활동과 '돈주'에 의한 투자도 이뤄지고 있다. 사금융은 1980년대는 환전, 1990년대는 고리대금이 성행했고, 2000년에는 장사로 돈을 번 사람들이 공식은행에 넣으면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해 개인에게 돈을 맡기기 시작하면서 사금융이 생겨났다. 북한의 사금융은 은행의 환전, 대부, 투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택을 사고파는 주택시장(부동산시장)은 최근 일이 아니다. 경제난 전에도 주택을 사고팔았다. 그때는 거래



평화포럼단이 관심 있게 강연을 듣고 있다.

해주는 사람은 없었는데 지금은 살 사람과 팔 사람을 엮어주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갖춰졌다. 제각각이던 집값도 수요 공급, 노후정도, 입지조건, 생활환경, 신규건축 여부에 따라 가격이 매겨진다.

지역시장은 전국적으로 연계돼 있고, 북한 5대 시장도 서로 연계돼 작동된다. 지역간 물자운송 시스템도 예전엔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물품을 가져다주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운송업자가 양쪽을 연결해주는 체계로 바뀌고 있다. 유선전화와 휴대폰, 금융시장이 있어 대금 결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북한 시장은 생산 없는 유통시장으로 반쪽 시장과 다를 바 없었으나 5대 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이 형성되면서 온전한 시장으로 면모를 조금씩 갖춰가고 있다.

북한 시장화는 체제위기의 완충제, 자본주의 온상이라는 양면성이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상황에서 민생안정의 유일한 출구가 되고 있다.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을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국정운영에 순기능 역할도 하고 있어 기업과 개인 중심의 시장활동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이 장기화된다면 북한이 과거 '고난의 행군'과 함께 생겨난 소비재시장을 합법화한 것처럼 비공식적인 5대 시장을 합법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남한은 통일의 관점에서 북한 시장화를 더욱 촉진하고 시장경제 체제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직간접적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장애든 비장애든 아이들 학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장민희**  
함께가는 강서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여기로 왜 들어오느냐? 장애시설이 너무 많다, 한방병원을 세워야 한다.” 9월 5일(화)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토론회는 반대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파행을 거듭했다. 한 엄마가 무릎을 꿇자 다른 엄마들도 달려 나왔다. 2년 전에도 엄마들은 특수학교 설립문제로 무릎을 꿇었다. 서울지역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1만 2천명, 이중 35%만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지적장애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해 신설 학교를 다닐 나이도 아니지만 이날 처음 무릎을 꿇었던 장민희씨의 간절함과 우리 사회에 대한 당부가 담긴 편지를 실는다.

## 왜 엄마들은 매번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YWCA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5일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 관련 2차 주민토론회에서 무릎 꿇은 사진으로 알려진 장민희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지적장애 1급으로 올해 2월 특수학교가 아닌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딸의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2013년,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 행정예고를 접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3년의 시간은 흘러버렸고,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특수학교가 생기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전공과에 다니면서 2년 정도 사회진출을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많았지요.

혹자들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과 직접 상관도 없는데 왜 그랬느냐고 묻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로서 강서지역 특수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뭐든 하고 싶었습니다. 토론회 때 엄마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호소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은 이후 많은 국민들께서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에 다니지 못하거나, 특수학교에 다니기 위해 하루 2~3시간씩 원거리 통학을 하는 불편을 겪는지 물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가 약자인 장애인의 교육권에 무심했다, 정말 안타깝다”라고 공감해주는 분들도 많고 설립을 찬성하는 서명운동도 벌여주셔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지지하는 기자회견까지 연 지역단체도 있고, 설립을 찬성하는 강서주민도 많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 여러분도 부모이고 저도 부모입니다

비장애학생들은 수월성 교육을 위해 외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등 특목고에 진학하기도 하고 직업을 위해 특성화고에 진학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교육 선택권이 있습니다. 반면 장애학생들은 특수학교 설립 확정이 공고되어도 또 다른 장벽인 주민들의 ‘넘비’(지역이 기주의)에 부딪혀 시련과 고통을 겪는 현실이 정말 안



장애자녀 엄마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가장 먼저 무릎을 꿇은 장민희씨(오른쪽 사진) 사연이 알려지며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타깝습니다.

저도 비장애자녀 둘을 키우지만 부모에게는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같은 자녀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장애자녀는 더 애뜻하고 잔한, 아킬레스건과 같은 존재입니다. 장애자녀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엄마는 죄책감을 갖고 자녀가 속한 사회에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와 같은 발달장애인은 표현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 아프면 아프다, 싫으면 싫다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행동도 처지고 느려 배려를 받아야 하는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성장이나 발달과정이 또래아이들과 크게 다르다는 의사의 장애판정은 엄마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막한 심정에 자녀와 함께 죽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이미 가족이 함께 자살한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보듬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면, 장애인 당사자도 가족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 장애인도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길

사실 장애인 부모들은 같은 지역 이웃들이 국립한방병원과의 효율성을 비교하며 학교설립을 반대하고 아이들을 배척하는 것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식 키우

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자녀가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일원이 되길 바라지 배척당하고 소외되기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가 왕따를 시킨다면 어떤 힘으로 버텨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막연히 낮설고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분리해서 따로 바라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청이나 부모회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들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늘 걱정과 조바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죽고 난 후 어찌 사회와 더불어 자립적으로 살아갈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비장애인 형제·자매의 몫으로 놔두기엔 너무 마음이 무겁고,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이 되어 장애인도 배척당하지 않고 부모나 가족의 걱정을 떠나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세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장민희 드림



‘너를 보내고 3년이 넘었는데, 그리움을 켜켜이 쌓아도 네가 있는 곳에 닿을 수 없다. 그 길이 얼마나 멀면 한없이 쌓아봐도 보이지 않을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딸을 떠나보낸 유인애씨가 그리움을 시로 엮어 <너에게 그리움을 보낸다>(굿플러스북)를 펴냈다. 세월호 참사 후 많은 작가들이 다양한 책을 출간했으나 유족이 문학형태로 책을 낸 것은 처음이다. 단원고 2학년 2반 이혜경 학생의 어머니 유인애씨(사진)와 아버지 이중섭씨를 YWCA 청년들이 9월 29일(금) 안산YWCA에서 만났다.

**혜경이를 쓰고 또 쓰다**

“핸드폰을 사용하다 뜨거워지면 재빨리 가슴에 대요. 딸의 온기 같아서요.” 유인애씨는 인터뷰 내내 핸드폰 속 혜경이 사진을 어루만졌다. 혜경이가 떠난 지 2년이 흘렀지만 슬픔은 여전하다. 결혼 7년 만에 첫째를 가졌고 둘째 딸 혜경이는 생각지 못하게 태어났다. 아빠와 엄마를 반반 닮은 아이였다.

사고 후 1년 반이 지나고 혜경이가 시집가면 주려 했던 배넛저고리를 꺼냈다. “이렇게 작았던 아이가 다시 오면 좋을 텐데...” 동생이 어느 날 글쓰기를 권했다. 혜경이가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써보라고 했다. 아는 사람도 아이를 잃고 글을 썼는데 치유도 되었다면서. 오롯이 마음을 적었고, 낫두리는 시가 되었다.

평생 소원이 책을 내는 거였는데, 시집이 나오곤 한동안 글을 쓰지 못했다. 살아남은 자신이 위로받자고 한 것 같아 미안하고 죄스러웠다. 그럼에도 시를 쓰는 시간 내내 혜경이와 함께였고, 혜경이가 생각나면 또 시를 썼

다. 매일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혜경이 방에서 한 줄이라도 썼다. 120여 편의 시가 그렇게 쓰였다.

시집에는 64편을 실었다. 특별한 시는 ‘마지막 포옹’. 2014년 4월 15일 마지막으로 혜경이를 따뜻하게 안았던 순간을 썼다. 설거지를 하느라 정신없는데 혜경이가 엘리베이터를 잡아놓고 인사만 하고 나가려고 했다. 혜경이를 다시 불렀다. 꼭 안았다. 마지막이 되었다.

**엄마는 죄인이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꾸던 혜경이는 속이 깊은 아이였다. 미용전문고등학교 진학을 원했으나 설득해서 단원고에 보냈다. 혜경이는 2013년 겨울, 언니의 수능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용학원에 등록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좋아했다. 비싼 학원비를 보더니 ‘엄마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줄게’라고 재잘거렸다. 그렇게 좋아했는데 떠나기 전까지 기껏해야 석 달을 다녔다. 부모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학교까지 30분 넘게

“뒤돌아보아도 아프다  
시간을 가슴에 짓이겨 뭉겼지  
멈추어도 아프다  
시간을 어미 발꿈치로 짓밟고  
한 발짝 떼어도 아프다  
시간은 뇌리에 정박해 있다”  
- 뒤돌아보아도 아프다



걸어다니며 버스비를 아끼던 혜경이. 짐 정리를 하다 보니 2만원이 나왔다. 아빠가 수학여행 용돈 5만원을 줬지만, 3만원만 가져간 것이다.

아빠가 퇴근할 때면 몰래 숨어서 놀라게 하던 모습이 선명하다. 안산분향소 자리도 애들 추억이 있는 곳이다. 아빠는 주말이면 유원지와 놀이공원으로 딸들을 데려갔다. 화랑유원지에서 인라인스케이트나 자전거를 즐겨 탔다. 삼오제를 지내며 다 태우라는 어르신들 말씀에 추억할 것을 모두 버린 게 후회된다. 혜경이가 아끼던 메이크업 박스도 학원에 기부했다.

혜경이는 마지막 가면서도 엄마 아빠 고생하지 말라고 밤새 올라왔던 것일까. 4월 17일 저녁 7시 혜경이는 세월호 근처에서 발견됐다. 자식을 구하지 못하고 가라앉는 모습만 멍하니 바라봤던 엄마는 여전히 죄인이다. 혜경이 고통을 나누려고 아침을 거르고, 지하철 자리가 있어도 앉지 않는다. 빨간 신호등에도 건너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반대방향으로 엇갈리는 지하철 안에서 ‘이대로 부딪혔으면’ 생각한다. 아빠는 슬픔을 참지 못할 때면 딸의 방에 들어가 혜경이를 부른다. 그 마음이 시집 곳곳에 담겼다.

**이제는 진실을 이야기할 때**

혜경이를 떠나보내고 가족들은 팽목항에서,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해 싸웠다. 그러나 진실은 규명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엄마들의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도 유인애씨는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이번엔 단원고등학교도 제대로 조사하길 바랐다. 4월 15일 안개로 다른 선박들은 출항을 취소했는데, 단원고는 왜 수학여행 일정을 무리하게 강행했을까. 생존한 두 교사는 아직까지 당시 세월호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의혹으로 치부했던 엄청난 무게의 철근더미가 실제로 발견됐다. 이제는 진실을 이야기할 때다. 추모교실 이전도 외부에 공간을 마련해놓고 옮기기로 했는데 쫓겨나듯 나왔다. 추모공원 부지 선정도 진척이 없다. 단원고 아이들의 추억이 있는 안산 화랑유원지 뒤편에 추모공원을 만들어 흩어진 아이들을 하루 빨리 모았으면 한다.

매일 아침 혜경이 사진을 보며 ‘잘 잤니? 날씨가 추우니 따뜻한 옷 입고 다녀’라며 대화한다. 손발이 찻던 혜경이를 늘 쓰다듬곤 했는데 사진을 만지면 그 감촉이 여전하다. 아이가 덜 외롭지 않을까 해서 혜경이 유골함 옆에 시집을 놓았다.

“시를 쓰고 읽는 순간 혜경이는 글로 새롭게 태어나요. 나중에 혜경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혜경아, 미안하고 사랑해.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

# 지금처럼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문윤희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팀 간사



10월 12일(목) 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국민 의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제10차 헌법 개정과 여성대표성'을 주제로 제4차 성평등 헌법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인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가 주제발표를 했고,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이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비롯해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양미강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위정희 사단법인 시민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민주화투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낸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30년이 흘렀다. 이제 제10차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참여의 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시민이 참여해,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시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이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주의 원칙과 평등정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평등과 남녀동수라는 21세기 시대정신에 맞게 성평등 헌법으로 바꾸자는 움직임 속에 국민의 절반인 여성시민의 참여, 여성대표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여성시민이 참여하는 헌법 개정을 전제로 국민참여 주도의 개헌을 강조한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과 위정희 사단법인 시민 이사의 토론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 여성대표성을 상실한 헌법 개헌

김은경 ▶ 이번 개헌은 국민참여 개헌이라는 큰 비전

을 갖는다. 36명으로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2월 국민상향식 개헌을 강조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개 분야(기본권총강, 경제재정, 지방분권, 정부형태, 정당선거, 사법부) 53명의 자문위원을 선정했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여성참여는 아주 미미하다. 개헌특위 위원 36명 중 여성은 4명, 53명의 자문위원 중 여성은 6명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기본권·총강 분과가 15조항에 성평등 내용을 포함할 수 있던 것은 여성이 분과장이라서 가능했을 것이다.

11차례에 걸친 국민대토론회도 막을 내렸다. 그러나 국민이 참여한 토론회였는지 의문이다. 여성 토론자 비율을 최소 30% 이상 되도록 했지만 가뭇에 콩 나듯 8명 중 한 명이거나 전무했다. 심지어 성평등을 언급한 여성 토론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사태도 있었다. 국민대토론회를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여성패널을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11차례 열렸지만 여성토론자 비율은 전무하거나 1명에 그쳤다.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미래지향적 성평등 개헌이 되기 위해 여성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처럼 입 다물고 있다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국회는 30년간 변화에 맞춘 과감한 헌법 개정 비전을 제시했지만 국민참여 개헌 절차를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국민참여 개헌의 첫 번째 계획으로 자문단을 구성했지만 '다소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자문단 의견을 국민대토론회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국민대표 5천명을 선발해 학습을 통해 원탁토론을 진행하고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적 예외' 상황이라 표현하는 남녀임금격차 문제를 비롯해 여성의 굴욕적이고 차별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위원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 위원들은 정부가 공개한 통계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들은 이미 남성 우위에 있다, 아직도 여성차별을 이야기하느냐" 등 성평등 문제를 향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다. 국회 홈페이지에 실린 여러 보고서와 회의록을 확인해야 한다. 학습이 전제되지 않으면 개헌은 이뤄지지 않는다.

성평등 헌법을 갖고 동성혼, 동성애를 문제 삼아 폭력적인 토론회를 이끈 특정 세력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에게 여성 주권자는 적극적으로 의견표출을 해야 한다. 정치영역에서 과소대표된 여성시민의 참여는 민주적 개헌의 필수조건이 아닐 수 없다.

### 성평등 헌법 개정, 내 밥상으로 가져오자

위정희 ▶ 헌법 개정에 대해 '내가 길 자리가 없구나, 촛불만 드는 게 내 일이었구나'라는 오해가 있었다. 헌법은 우리와 가까우면서도 멀게 느껴졌다. 국민의 권리를 명시했지만 소수 엘리트와 전문가의 영역처럼 느껴졌다. 헌법이 우리 골목과 내 밥상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국회 회의록을 보면 여성을 보는 관점과 헌법에 대한 가치적 몰이해 수준을 알 수 있다. 모두의 기본적인 인간존엄과 본질적 평등에 입각한 개헌의 방향이 국회에 의해서만 이뤄져서는 안 된다. 그동안 헌법 개정은 시민사회의 수많은 이야기 속에 묻혀 있었다. 촛불 정신을 이어가는 지금 헌법 개정을 내 밥상으로 가져와야 한다. 토론회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이유를 생각해본다. 1987년 온 몸을 바쳐서 바꾼 헌법을 다시 온 몸을 바쳐 만들어야 한다. 촛불을 들 때 광화문 지하도에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버티던 장애인 분들의 노력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그들은 1천일을 넘게 싸워서 해결했다. 헌법은 무엇을 했는가. 헌법은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단순 보호법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청구적 권한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권리보장을 국가에 요구하고 청구할 수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내 밥상으로 헌법이 들어와야 시민이 참여하는 길거리 토론이 가능해질 것이다. W



2017년 YWCA 전국 돌봄 임원 워크숍이 9월 22일(금)부터 23일(토)까지 버들캠핑장에서 1박2일간 열렸다. 23개 회원YWCA 돌봄 임원과 실무자 등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YWCA 직업훈련과 돌봄운동 역사를 돌아보며 일자리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색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백영식 고용노동부 사무관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안과 돌봄노동시장 변화' 강의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 실는다.

### ‘파출부’ 직종개발로 돌봄서비스 시작

한국YWCA는 1966년 11월 서울YWCA 주관으로 한국 최초 가사도우미인 ‘시간제 가정부’를 새로운 직종으로 개발했다. 파출부 모집과 교육을 시작한 서울YWCA 정문 앞은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당시 시험을 거쳐 선발된 11명의 정예요원을 시작으로 올해 가사도우미는 공식·비공식 부문에서 약 30만 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5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가사도우미의 처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직업안정법상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소에서 소개받아 일하는 일용근로자에 불과한 상황이다. ‘도우미 아줌마’로 불리며 돌봄 노동은 노동개념이 아닌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곤 했다.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자는 노력은 계속돼 왔다. 국회에서는 18

대 김상희 의원, 19대 김춘진·이인영 의원과 20대 서형수·이정미 의원이 가사노동의 공식화에 앞장서고 있다. YWCA는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인 6월 16일 서형수 의원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을 위한 법률 제정안’ 마련을 함께 준비했다. 고용노동부도 6월 26일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 가사근로자 권리 보장과 서비스품질 제고

현재 직업소개소를 통한 가사근로자 고용방식은 단순히 이용자와 종사자를 연결하는 수준에 그쳐 서비스 품질과 신뢰, 책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용자들은 신원이 보증된 종사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후처리 등이 보장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23개 회원YWCA 돌봄 임원들이 워크숍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

희망했다.

평균연령 57세, 월평균 임금 60만원의 저임금 중년 가사근로자에 대한 상대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근로조건 보장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가사근로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4대보험 등 기본권리 보장을 요지로 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며 근로자 권익보호와 여성 일자리 참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엔 가사근로자는 직업소개 기관에 회비를 납부하고, 이용자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기관은 중개만 할 뿐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형태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맺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와 제공기관은 이용계약을 맺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 국회도 정부도 나섰다

30만 명의 가사근로자 대부분은 전국 1만개에 이르는 유료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하고 있다. 대개 영세규모인 이들 사업체는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전체 가사근로자의 20~30% 정도만 직접 고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사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 같이 소정 근로일과 소정 근로시간이 정해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수요가 발생해야 일할 수 있고, 이용자가 이사를 가는 등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어 근로기준법을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법안은 ‘제공기관의 사업주는 소속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회가 균등히 배분되고, 소속 가사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다른 법안은 ‘보장하여야 한다’,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어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현행 시스템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제공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고 싶은 가사근로자는 기존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동시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납부하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사업체의 가사노동자 직접 고용으로 늘어나는 부담을 감당하려면 이용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요금 인상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 만족 없이는 어렵다.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무 표준화와 체계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국회에는 서형수·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다. 정부안은 조만간 국회로 넘어가 11월부터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YWCA는 전국 30만 가사노동자가 공식적인 직업이자 근로자로 인정받도록 하루 빨리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 단순히 법안 통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식화된 사회서비스로, 공식노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W

#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라

이번 호에서는 YWCA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16년 YWCA 전국회원대회에서 YWCA 대상을 받은 김숙희 한국YWCA연합회 증경회장을 만났다. 9월 18일(월) 연합회 회장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는 이명혜 회장과 유성희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대담** 이명혜 회장 유성희 사무총장  
**글·사진** 신미희 문윤희 손지수 홍보출판팀



김숙희 한국YWCA연합회 증경회장 약력

1976~2006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1983~1989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장  
1992~1993, 1997~2006 한국YWCA연합회 회장  
1993~1995 제34대 교육부 장관  
2006~현재 한국YWCA연합회 명예연합위원

## 발로 뛰며 세운 회원YWCA YWCA와의 첫 만남이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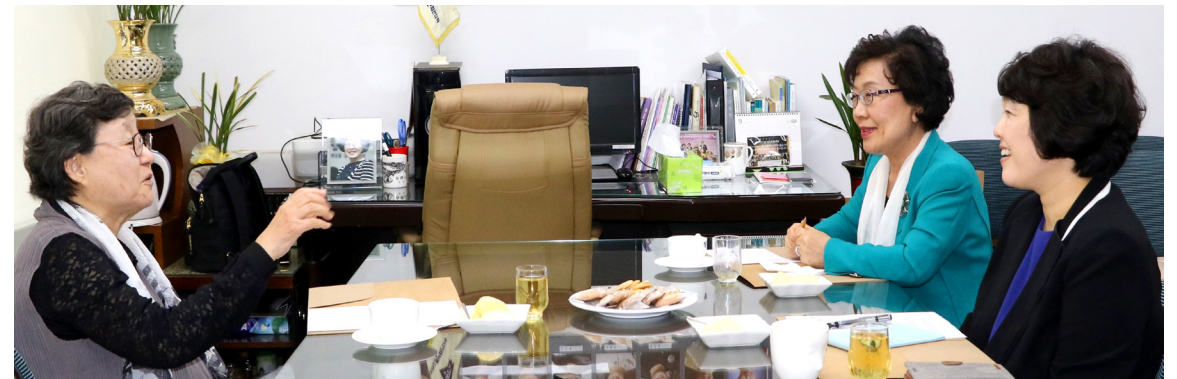
“이대 교수가 되고 음대 학장이던 김영희 선생님이 YWCA에 가자고 하셨어요. 그때 처음 왔어요. YWCA는 오기만 하면 회의를 하잖아요?(웃음) 그때도 회의 중이었고 구석에 앉아있었죠. 여러 모임에 참석하다가 1972년 김영희 선생님 추천으로 대학생 위원이 되었어요. 위원장부터 세계대회 참석까지 여러 감투가 쏟아졌어요. 박에스더, 김애마, 최이순 선생님이 ‘너는 YWCA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그렇게 배워나갔어요.”

## 긴 세월 YWCA와 함께했는데 그 열정과 헌신은 어디서 나왔나요?

“모르겠어요.(웃음)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말하라니깐 와서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당시 미국에서 학위 받은 사람이 몇 없어서 나라에 공헌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죠. “미국은 이렇게 하더라”, “변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말을 계속 시키고 다양하게 요구하니 책을 읽고 공부를 했죠. 박에스더 선생님에게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혼나기도 하고, 많이 배웠어요. 저를 YWCA 지도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이 사람을 키우는 지도자가 있어야 해요.”

## 1980년대 농어촌영양특별사업을 펼쳤는데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이화여대 과학관을 짓기 위해 독일을 방문해 독일 개신교 중앙개발원 조처(EZE)에서 450만 마르크를 지원받는 일을 성사시킨 적이 있어요. 그 때 저를 좋게 본 EZE 직원의 제안으로 50만 마르크를 지원받아 ‘농어촌영양특별사업’을 시작했지요. 농촌에 필요한 것을 알아봤더니 조치원YWCA는 목욕탕과 방앗간이 필요해서 방앗간 세우기를 목표로 잡았어요. 순천 YWCA는 최문옥 총무의 제안으로 가난한 동네 두 곳에 방앗간을 세웠고요. 권상달 군산YWCA 회장이 추천한 농촌까지 네 군데에서 영양사업을 시작



김숙희 연합회 증경회장이 이명혜 회장, 유성희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하며 웃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했어요. 마을마다 영양강좌를 무료로 해주고, 방앗간이 잘 되는지 둘러보고 다녔죠. 농촌영양사업과 대학 강의, 대학원생 교육까지 엄청 고생했어요.”

## 당시 회원YWCA가 53개로 확대되는 등 크게 성장했는데 성장동력이 궁금합니다.

“실무자였던 이진용 선생님의 공과 열정으로 가능했지요. 농어촌영양특별사업으로 지역을 돌아다니며 곳곳에 YWCA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진용 선생님은 지역 사람들이 제 말을 들으면 YWCA를 세울 것이라며 매일 전화했어요. 회원YWCA를 세울 사람을 찾았다고 연락하면 제가 가서 만나고 강연했지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서류를 한가득 들고 버스로 전국을 돌아다녔죠. 힘들어도 그만두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13개였던 회원YWCA가 53개로 늘어났어요. 이진용 선생님은 발이 혈면서까지 돌아다녔어요.”

## YWCA는 사람을 세우는 곳 YWCA 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펼쳐지길 기대하나요?

“요즘 학교폭력 사건이 화두인데 그런 일에 앞장서서 개입해야 해요. 사회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야 해요. YWCA는 유명해지려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장관이 되려고 오지 않았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서를 보내 이대 학생들에게 관찬은 여성 교

수를 물어보고 다녔어요. 많은 학생들이 저를 지목했고 YWCA 등 경력을 좋게 보셨나 봐요. 대통령에 당선되고 청와대로 불려서 교육부 장관을 하게 됐어요.”

## 이명혜 회장 ▶ “증경회장님이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장관으로 뽑힌 것이죠.”

**유성희 사무총장 ▶** “영양학 전문가로서 건강가족지원법과 건강가족지원센터도 만드셨고 지금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 전달체계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교육부 장관으로 있을 때 학생들이 가방을 많이 들고 다니는 게 안타까워서 신발 주머니와 실내화를 없애는 시도도 하셨죠. 개인 사물함도 이때 만들어졌어요. YWCA에서는 냉장고 용량 줄이기 등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밀착형 활동을 많이 제안하셨죠.”

## YWCA가 붙잡고 가야 할 가치가 있다면?

“YWCA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해야 해요. 고위급이 되려는 목적으로 오는 것은 위험해요. 무엇보다 선배를 기억하는 YWCA가 됐으면 좋겠어요. 김정옥, 박순양, 김영희, 김현자, 김영정, 최이순 선생님도 계세요. 김애마 선생님은 우리나라 유치원을 1호로 세웠어요. 이런 선배님들이 바로 YWCA 업적이예요. ‘선배의 날’을 만들어서 예배를 하거나 추억을 나눴으면 해요. YWCA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 “잊으면 지는 거여”

## 영화 <아이 캔 스피크>가 말하는 기억의 정치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



영화 <아이 캔 스피크>는 코믹한 설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서도 감동과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다.

“하우 아 유?”라고 묻는 질문에 “아임 파인 땡큐”라고 대답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빈번히 흘러나올 때 처음엔 시니어 영어교실 광고인 줄 알았다. “아이 캔 스피크, 극장에서 만나요”라는 마지막 멘트를 듣고서야 영화광고임을 알았고 이 짧은 영어 문장은 나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대체 무엇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일까? 할머니는 지금 이 시대에, 누구에게 ‘말할 수 있다’고 말을 걸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영어로 말이다.

이 영화는 놀랍게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소재로 했다. 기억과 증언의 서사가 기존 영화들과 다를 뿐이었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는 일본에 대한 내셔널리즘을 자극하거나 위안부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적나라하게 재현하는 방식으로 ‘기억’을 환기하고 호소하는 영화와 전혀 다르게 ‘위안부’ 문제를 다룬다.

영화를 가득 채우는 것은 일본군의 폭력과 소녀들의 공포와 비명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며 침묵을 깨는 고통스런 증언이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넋을 위로하는 해원굿 장면이 아니다. 삶의 의지와 활력으로 가득 차서 ‘지금 이 시간’을 충만하게 사는 열정적인 할머니

와 티격태격하면서도 우정을 주고받는 훈남 청년의 코믹하고 따뜻한 순간순간들이다.

### 망각의 정치에 맞선 기억의 정치

주인공 나옥분 여사는 시장통에서 옷수선 가게를 하는 그저 보통 할머니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는 20년 동안 8천 건이 넘는 민원을 구청에 제기한 무시무시한 ‘프로민원러’로서 일명 ‘도깨비 할매’라 불린다. 이 극성 할머니의 삶이 극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 할머니 민원처리 전문가로 새로 등장한 청년 박민재와 만남이다. 청년은 가난으로 꿈을 포기하고 9급 공무원이 된 사연을 가졌고, 변변치 않게 남동생과 끼니를 때우는 모습은 나옥분 할머니에게 불같은 연민을 일으킨다. 청년 박민재도 극성스런 도깨비 할매에게 냉정히 대응하다 따뜻한 밥 먹는 재미에 영어수업 민원을 덜컥 받아서 영어과외를 하게 된다. 이들은 영어수업을 통해 우정을 나누고 서로의 삶에 더 친밀하게 깊이 다가간다. 그러다 할머니가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유가 어린 시절 헤어져 미국에 살고 있는 남동생과 말을 하기 위해서라

는 것을 알게 되고, 이윽고 할머니 삶 속 깊은 고통으로 자리잡고 있는 ‘위안부’ 경험과 마주하게 된다.

영화는 이때부터 코믹스런 일상의 재현에서 치열한 기억의 정치로 옮겨간다. 남동생과의 대화를 위해 배운 영어는 이제 ‘아이 캔 스피크 잉글리쉬’ 의미를 뛰어넘는다. 죽어가는 위안부 친구를 대신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위안부 증언을 하게 된 나옥분 할머니는 평생 가슴에 묻어두고 말하지 못한 진실, 상처 속에 봉인해 놓았던 위안부 증거들을 꺼내놓으며 “아이 캔 스피크”라고 외친다.

그 자리에 앉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조작이라고, 착각이라고 외치며 ‘망각의 정치’를 획책하는 일본 정부와 가슴 없는 정치가들,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방청객들에게. 이 극적인 장면을 마주한 관객들은 오른손에 든 팝콘을 내려놓고 서둘러 손수건을 찾아야만 했다. 멍멍해진 가슴 밑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그 누가 주체할 수 있었으랴.

### 고통의 기억,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이 영화가 다른 위안부 영화와 다른 점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고통의 기억과 연대할 수 있는지 ‘상상’하게 한다는 것이다. 수전 손택(Susan Sontag)은 <타인의 고통>에서 사진 등을 통한 전쟁과 폭력의 적나라하고 생생한 재현이 오히려 보는 이로 하여금 타인의 고통에 무감하게 하고 그 장면을 소비하게 한다고 말했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의 미덕은 어마어마한 폭력의 장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지 않으면서도 위안부라는 묵직한 주제를 통해 우리에게 치열하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를 말이다.



<아이 캔 스피크> 나옥분의 실제 주인공인 이윤숙 할머니(오른쪽)가 2007년 미국 워싱턴 하원 청문회장에 참석해 증언하고 있다.

“잊으면 지는 거여”라고 말하며 위안부 증거가 될 낡은 사진을 만지작거리는 나옥분 할머니 모습에서 우리는 오히려 ‘잊어야만’ 살 수 있던 세월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다. 민원대장 할머니의 이 생기 있는 일상은 고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통 받는 다른 이들에 대한 뜨거운 연민이 기억을 재현하고 ‘말할 수 있게’, 그리고 ‘말해야만 하도록’ 만든 힘이다. 또 다른 미덕은 나옥분 할머니를 고통의 과거에 묶어두어 피해자로 전형화하지 않고, 현재를 치열하게 사는 ‘말하는 주체’로 보여준다는 점이다.

마이클 아이젠버그라는 학자는 “역사는 말해지고 행해진 것들에 대한 기억”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기억은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어야 하고, 재현된 기억을 진실된 역사로 만들려면 우리 어떻게 행동하고 기억에 연대해야 할 것인가. 일본의 학자 오카 마리(岡真理)는 <기억·서사>에서 홀로코스트, 전쟁, 학살과 같은 폭력적 사건의 기억과 그 기억을 재현하는 것의 한계를 말하면서도 사건의 기억은 어떻게 해서든 타자 즉, 사건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결국 집단적 기억, 역사의 연설을 구성하는 것은 위안부 역사를 체험하지 않은 타자들,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는 기억의 정치를 만들어갈 우리들이 어떻게 고통의 기억을 상상하고 또 연대할 것인가에 대해 치열하면서도 감동적으로 말을 걸고 있다.

10월 월례아침기도회



10월 12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10월 월례아침기도회가 열렸다. 김경은 장신대 교수가 '영성과 성찰'을 주제로 설교했다. 김 교수는 기독교 영성의 핵심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찰의 기도를 제시했다. 회원Y협력지원위원회와 Y-틴 위원회가 특송을 맡았다.

한국YWCA 정책협의회



2018-2019 운동정책을 논의하는 한국YWCA 정책협의회가 9월 21일(목) 서울YWCA 강당에서 열렸다. 회장, 사무총장을 포함한 전국 52개 회원YWCA 대표와 연합회 실행위원, 실무활동가 등 194명이 참석했다.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이 2016-2017 정책평가와 2018-2019 정책안을 설명하고, 중점운동 정책 이해를 위한 발제가 이어졌다. 박진희 동국대 교수가 탈핵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자립 지역사회 만들기를, Y아카데미 위원인 이숙진 이대 교수가 YWCA 활동가 성평등 인식 조사를 통해 본 YWCA 성평등운동을 각각 발표했다. 그룹토의에서 회원YWCA 우선 실천과제와 전국 중점운동 공동사업이 제안됐다. 비

영리단체 세무강의(양동수·정순문 변호사), YWCA 1922장학금 전달식, 탈핵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YWCA 1922장학금' 수여



YWCA 1922장학금 첫 전달식이 9월 21일(목) 2017 정책협의회에서 진행되었다. Y-틴 중앙임원 9명, 대학·청년Y 중앙임원 5명과 운영위원 17명에게 수여된 이번 장학금은 Y-틴 북부지역 정수희 총무,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이혜린 총무와 정하연 운영위원이 대표로 받았다. 한국YWCA연합회가 청소년, 청년 양성을 위해 95주년 기념사업으로 신설한 1922장학금은 올해부터 100주년이 되는 2022년까지 운영된다.

1단계 실무활동가 교육



2017년 제2차 YWCA 1단계 실무활동가 교육이 9월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2박3일간 버들캠프장에서 열렸다. 22개 회원YWCA 본부와 부속시설을 비롯해 연합회 실무활동가 등 58명이 참석했다.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의 '시민사회와 YWCA' 강의를 시작으로 YWCA 목적을 이해하고 YWCA 운동가로서 사명과 비전을 수립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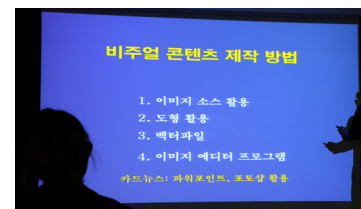
는 교육이 진행됐다.

대학·청년Y 'Y청년 열린아카데미'



대학·청년Y 'Y청년 열린아카데미'가 동부지역은 9월 16일(토) 대구YWCA에서, 중부지역은 9월 23일(토) 청주YWCA '일하고 참여하는 청년의집'에서 각각 열렸다. 손지수 전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장의 친구가 들려주는 YWCA 이야기, 청년들의 인간관계 고민을 다루는 권성대 대전스쿨B 청년대표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북부지역 열린아카데미는 10월 28일(토) 서울YWCA에서 열린다.

청년기자단 10월 정기모임



청년기자단 3기 제4차 정기모임이 10월 14일(토)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청년기자들의 온라인 콘텐츠 이해를 돕기 위해 이수동 브이랩인포그래픽 소장의 '인포그래픽과 디지털저널리즘' 특강을 듣고 청년기자들이 작성한 기사, 카드뉴스 등을 평가했다.

씨티은행 씽크머니 금융강사교육

2017년 제2차 씽크머니 한국씨티은행 금융강사교육이 10월 19일(목)



연합회 강당과 펍핀(Pub-FIN 씽크머니 금융생활체험교실)에서 진행됐다. 한국씨티은행 임직원 19명은 씽크머니 금융강사로서 소명의식을 키우고 전문역량을 강화했다. 이들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펍핀에서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NCS 아이돌봄분야 개발사업

최종보고회

NCS(국가직무표준능력) 아이돌봄분야 표준매뉴얼과 활용패키지 개발기관으로 선정된 한국YWCA연합회는 10월 20일(금) 연합회 강당



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현장전문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등 12명이 참여한 최종보고서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되면 개발사업은 완료된다. YWCA는 2015년 가사지원분야 표준매뉴얼을, 2016년 가사지원분야 학습모듈과 공간정리수납 능력단위를 추가 개발했다.

故 고의순 위원 추모예배

故 고의순 은학의집 운영위원 1주 기 추모예배가 10월 10일(화)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열렸다. 유족, 지인, 고인이 생전 다니



던 교회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YWCA에서는 이명혜 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 위원, 실무활동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고 위원의 오랜 친구이자 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 회장인 장상 목사가 추모기도를, 이동원 지구총교회 목사가 추모설교를 했다.

**등정**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  
이사진 연합회 방문 10월 23일

시간 안내

철학하는 여자가 강하다 장혜경 옮김



이마 / 1만4천원

충분한 교육을 받고 능력도 있는 현대 여성은 왜 함정에 빠지는가. 독일의 대중철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레베카 라인하트는 현대 여성이 무기력한 이유는 권력이 없어서라고 본다. <철학하는 여자가 강하다>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철학 사상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전략을 찾아내 활용하면 여성이 권력을 쟁취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페미니스트 파이트 클럽 노지양 옮김



세종서적 / 1만5천원

직장 안에서 마주치는 온갖 성차별에 어떻게 대항해야 좋을까. 젠더, 성차별, 대중문화에 관한 글을 쓰는 미국 저널리스트 제시카 베넷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페미니스트 파이트 클럽>은 이런 고민에 도움될 실용적이고 유쾌한 대응전략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포브스, 시카고 트리뷰 등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YWCA 1922 장학금 모금현황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회원YWCA 부속시설	서울YWCA,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익산YWCA	110,000
개인 기부	강교자, 김미애, 김정애, 김태연, 문은희, 배경자, 배창빈, 손서정, 송기영, 양영심, 임경식, 오양순, 윤영선, 윤석민, 이민정, 이종임, 이준호, 이지은, 임경화, 임정임, 장미란, 전유경, 정운찬, 제혜숙, 조은영, 진미영, 최금숙, 최명란, 최형선, 황희경, 황정아	5,940,000
기관, 단체	한국씨티은행 임직원	50,000
합계		6,100,000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17. 9. 1~9. 30)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기부	강승아, 고세영, 고예린, 곽지영, 구정혜, 국은택, 관순복, 권진기, 김기현, 김경숙, 김경희, 김귀옥,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미애, 김병호, 김사라, 김상은, 김수연, 김수진, 김애린, 김영자, 김영희, 김은경, 김은영, 김일근, 김재연, 김장민, 김주영, 김주현, 김진용, 김태연, 남희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숙, 박은옥, 박은실, 박인희, 박진화, 박호정, 배유미,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울, 배한울, 백정미, 백보림, 백혜진, 서은미, 손정원, 송복희, 신명자, 신인숙,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영선, 양종원, 임세현, 안효정, 오소영, 오시향, 오영란, 오현숙,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성희, 유수, 윤영선, 윤수정, 윤정분,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영, 이주영, 이찬형, 이찬진, 이향자, 이혜린, 이희숙, 이희정, 임강숙, 임진영, 임향옥, 장경자, 장미란, 장선희, 장은우, 전혜자, 전정미, 전하예, 정경란, 정동신, 정지유, 조성에, 조영미, 조은영, 전인식, 채정희, 최수나, 최지영, 최희선, 허은경,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함희경, 홍기자, 홍현정, 홍현화, 황홍백	2,083,000
협력교회	기본소식교회, 약전명강교회, 한양대학교회, 여선교회	190,000
기관, 단체	마포구 신수동 주민자치센터, 마포구청 기독교회, NH농협은행명동지점, 르뱅명동성당지점, 명성약국, 알파문구, 에베레셀프(명동점), 전광수CoffeeHouse(명동성당점)	274,850
합계		2,547,850

경기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녹색평화원정대



9월 18일(월)부터 10월 11일(수)까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녹색평화원정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쟁점을 살펴보는 강의를 시작으로 물 절약과 진단법, 가정에너지 절약과 진단법, 신대방 에너지자립마을 탐방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물공유 아파트 시범사업, 에너지자립 마을을 위한 준비를 하기로 했다.

광명YWCA

김진희 간사

업사이클 아트 특강



업사이클에 관심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9월 12일(화), 19일(화) 재활용을 이용한 젤리향초와 현 남방을 활용한 미니쿠션을 만드는 아트 특강을 진행했다. 수강생들은 쉽게 소비하는 습관을 버리고 폐품을 쓸모 있는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의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부천YWCA

이지원 간사

강화도 여성평화기행



9월 20일(수) 평화운동가인 이시우 사진작가와 함께 강화도 여성평화기행을 떠났다. 유라시아, 동아시아, 남과 북이라는 강화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특성으로 고려 몽골 침입부터 시작해 조선 정묘호란 때 굴욕적 조약을 맺은 연미정, 유라시아 대표 유적인 고인돌, 정전협정이 아직도 진행 중임을 알려주는 평화전망대 등을 찾아 지나는 역사를 되짚어보며 한반도 평화통일의 해법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수원YWCA

정지영 간사

한가위맞이 '알음알음나눔장터'



9월 20일(수) 한가위를 맞아 사회적기업과 공정무역 물품, 로컬푸드 등을 판매하는 '알음알음나눔장터'를 열었다. 지역기업과 수원시는 1천만원 상당의 판매금액을 후원했다. 나눔장터 수익금은 지역 독거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해 쓰인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

하는 탈핵캠페인과 함께 양성평등운동에 남성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히포시(HeForShe) 캠페인도 진행됐다.

안산YWCA

문성은 주임

안산환경한마당 탈핵 체험부스



안산YWCA는 9월 23일(토)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린 2017 안산환경한마당에서 '핵발전소 NO! 탈핵 불링게임'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를 운영 중인 곳, 건설 중인 곳, 건설계획 중인 곳에 불링판을 세우고 쓰러뜨린 핀만큼 탈핵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안산시와 안산교육지원청이 주최한 안산환경한마당은 제로에너지 요리경연, 이색자전거 체험 등도 진행됐다.

안양YWCA

김순태 간사

여성진로페스티벌 '행복한 사다리'



안양YWCA가 운영하는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는 9월 22일(금) 안양역 롯데백화점 사롯데광장에서 여성진로 페스티벌을 열었다. 취업지원관, 직종관, 채용관, 홍보관을 운영해 여성전문 직종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선호

직종과 도전 직종에 대한 시연을 진행했다.

의정부YWCA

정진아 부장

차이가 나 타운?



의정부YWCA는 9월 16일(토) Y-틴 동아리 '공감대' 20명과 다래교실 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차이가 나 타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다래교실에서 '쿠킹아트 지도자과정'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필리핀 청소년 6명은 Y-틴 청소년들에게 쿠킹아트 아이싱(케이크나 과자류에 마무리 재료를 바르는 것) 과정을 전수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국 문화를 나누었다.

파주YWCA

이순길 간사

소외계층가정 초청 '패밀리 힐링콘서트'



파주YWCA는 9월 23일(토) 파주출판단지에 위치한 김영사 북카페에서 소외계층가정을 초대해 '패밀리 힐링콘서트'를 열었다. 유모차콘서트, 태교음악회 등 독특한 공연으로 눈길을 끄는 밴드 '헬레나뮤직'이 바이올린, 첼로, 하프, 플루트로 클래식 음악과 동요를 연주했다. 육아에 지친 부모들에게 쉼을 주고, 아이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운 공연이 되었다.

동부

거제YWCA 장미숙 간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캠페인



거제YWCA는 9월 13일(수) 대학Y 동아리 'KEY' 회원들과 유희업소가 밀집된 옥포매립지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활동을 했다. 편의점과 각종 업소를 방문해 술과 담배를 판매할 때 청소년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YWCA 배민희 간사

EM 애(愛)더하기 프로그램



대구YWCA는 시민들이 가까운 주변부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생활 속 실천을 할 수 있도록 9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EM교육을 진행했다. EM을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EM화장품 만들기, 식용이 가능한 EM분말을 활용한 먹용거리 만들기, 수질 정화를 위한 EM흙공 던지기 등으로 진행됐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제29주년 창립기념 예배

9월 5일(화) 제29주년 창립기념 예배를 사천YWCA에



서 진행했다. 윤성대 동산재건교회 목사가 '축복과 저주'라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 사천YWCA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정의·평화·생명 세상을 위해 헌신하도록 한 것은 구주 예수그리스도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실천하는 YWCA가 될 것을 기원했다.

울산YWCA 김다혜 간사

울산소비자단체협의회 창립



울산YWCA를 비롯한 울산지역 5개 소비자단체는 9월 19일(화)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울산 소비자단체협의회를 발족했다. 총회는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강연과 경과보고, 정관심의, 소비자권의 보호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결의, 울산YWCA 여성합창단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울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권의 관련 울산시 조례와 정책 분석, 소비자권의 증진 캠페인, 소비자교육, 정보취약계층 피해 예방교육 등을 벌일 예정이다.

양산YWCA 이나라 간사

양산천 EM흙공 던지기

양산YWCA는 양산라이스온스클럽, 환경활동가, 청소년들과 함께 9월 12일(화) 지역하천 수질개선 활동으



로 양산천에서 EM흙공 던지기를 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양산YWCA는 양산청소년회관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EM쌀뜨물 발효액, EM천연비누, EM치약을 직접 만들어보고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이날 학생들이 만든 흙공은 4주간 발효를 거쳐 양산천에 투척됐다.

진주YWCA 고명정 팀장

여성, 세대를 넘어선 평화기행



진주YWCA는 9월 7일(목)부터 8일(금)까지 지역사회 여성활동가 22명과 광주 역사평화기행을 다녀왔다. 5.18민주묘역,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미술관 등을 둘러봤으며 특히 '광주의 어머니'로 불리는 조아라선생 기념관을 방문해 YWCA 선배이자 여성활동가의 발자취를 만났던 여정이 뜻깊었다.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참가자들은 세대별 소통을 통한 역량강화와 네트워크를 만드는 기회가 되었다.

진해YWCA 김미영 팀장

에코우먼 '면생리대 만들기'

'독성물질 생리대 파동' 문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진해YWCA는 9월 22일(금) 경상남도 민간단체 환경보전



활동 지원사업으로 '에코우먼-면생리대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진해구 주부 30명이 참여해 여성 생식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호르몬의 심각성을 배우고, 면생리대를 직접 만들어보면서 대안을 모색했다.

창원YWCA 정혜경 간사

인문학의 숲, 안상헌 작가 초청



창원YWCA는 9월 7일(목) 동아리 '인문학의 숲'이 주최한 저자와의 만남을 진행했다. 이날 초청된 저자는 '청춘의 인문학', '인문학공부법' 등을 펴낸 안상헌 작가로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해 회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포항YWCA 김수영 간사

청소년 아침밥 먹기 릴레이 캠페인



## 회원YWCA 소식 10월

포항YWCA는 9월 14일(목) 청소년기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펼쳤다.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은 청소년들에게 포항YWCA와 포스코 임직원들이 우리 쌀로 만든 떡, 바나나 우유를 나눠주며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을 알렸다.

## 북부

### 동해YWCA

전민지 간사

####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날개를 달다'



동해YWCA는 9월 23일(토) 동해시 웰빙레포츠타운(종합운동장)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날개를 달다'를 열었다.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재능과 특기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된 청소년 어울마당은 올해로 13회를 맞았다. 올해는 19개 팀이 참여한 장기자랑과 체험, 먹거리 부스 등이 진행됐으며 청소년들의 친목도모, 정보교류, 또래커뮤니티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 서울YWCA

성지희 간사

####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서울YWCA는 유한김벌리와 함께 2009년부터 해마다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를 열고 있다. 올해는 9월초 4회에 걸쳐 200쌍의 신혼부부와 함께했다. '소통'을 주제로 한 특강과 워크숍을 통해 가족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건강한 부모 되기를 다짐했다.

### 속초YWCA

정인숙 간사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캠페인



속초YWCA가 주관하고 속초경찰서와 속초환경연합이 연대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캠페인이 9월 29일(금) 속초 서독약국 앞에서 청학동 사거리까지 진행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탈핵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호소하며 서명운동도 벌였다. 시민들과 학생들이 적극 참여해 탈핵 에너지전환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 인천YWCA

오수진 간사

#### Y-틴, 대학·청년Y 연합체육대회



인천YWCA는 9월 2일(토)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Y-틴과 대학·청년Y의 친목도모를 위한

연합체육대회를 열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다양한 체육경기와 레크리에이션,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다. 참가자 모두가 상품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원주YWCA

김민영 간사

#### 사회관 건축기금 마련 바자회



원주YWCA 사회관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9월 2일(토) 원주YWCA 잔디밭에서 열렸다. 원주YWCA 어린이합창단&오케스트라 공연과 마술 공연이 진행됐고 자원활동가, 실무자, 회원들의 봉사로 공예, 의류, 생활용품, 먹을거리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했다.

### 춘천YWCA

경소희 간사

#### 치매예방 전문가과정 진행



9월 18일(월)부터 9월 21일(목)까지 취업 취약계층인 만 50세 이상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치매예방 전문가교육을 진행했다. 춘천YWCA 실무자가 취업능력향상 교육과 면접스피치 교육을 진행했다. 수강생들은 치매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노인들이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치매예방을 돕는 전문가역할의 중요성을 배웠다.

## 서부

### 광양YWCA

이현숙 간사

#### 포스코1%나눔재단 재능봉사



광양YWCA와 포스코1%나눔재단은 9월 16일(토) 광영동 광포3길 주변마을에서 재능봉사를 펼쳤다. 포스코 임직원으로 구성된 반딧불전기봉사단과 농기계봉사단은 노후화로 위험에 노출된 전선을 점검교체하고, 오래된 12가구 담장을 페인트칠로 새롭게 단장했다.

### 광주YWCA

손유영 부장

#### 돌봄 재능기부의 날



광주YWCA는 9월 23일(토) 30명의 봉사자를 파견한 '재능기부의 날' 행사로 소외된 이웃 20가정에 따뜻한 추석을 선물했다. 올해로 5회째인 '재능기부의 날'은 돌봄·살림 회원들과 이사, 위원, 활동가들이 한부모, 조손가정에 YWCA가 직접 만든 반찬을 나누고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재능 나눔이다.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하고자 하는 YWCA 정신을 잘 구현한 행사로 자리잡았다.

남원YWCA

김미정 간사

아동·여성연대 폭력없는 세상 만들기



남원YWCA는 9월 19일(화)부터 20일(수)까지 남원고등학교, 남원한빛중학교에서 '아동·여성연대 폭력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이며 근절되어야 할 인권침해 범죄임을 알리기 위해 홍보 리플렛을 배포했다.

목포YWCA

곽수현 국장

지역아동센터 씽크머니 금융교실



목포YWCA는 7월부터 9월 20일(수)까지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씽크머니 금융경제교육을 12회 진행했다. 아동들에게 돈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 용돈 기입장 작성법, 소득 개념, 올바른 소비와 저축습관 등 금융교육 이론과 게임, 체험 등을 함께 교육했다.

여수YWCA

박선주 간사

추석바자회



여수YWCA는 추석을 맞아 9월 19일(화)부터 20일(수)까지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회원과 시민들의 참여 속에 바자회를 진행했다. 지역 건어물과 농산물, 환경을 살리기 위한 EM제품, 지역 공예협회에서 마련한 공예 작품, 기능성 신발 등을 판매했다. 무료 음료로 시민들을 맞이해 소통하는 만남의 장도 열었다. 매년 열리는 바자회 수익의 일정액은 북한어린이돕기와 지역청소년 장학금 기금에 쓰인다.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안전마을 주민과 통하다' 서포터즈단 발대식



서귀포YWCA는 9월 25일(월)부터 28일(목)까지 정방동 주민센터에서 제주도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안전마을 주민과 통하다' 서포터즈단 발대식과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주민 20여명이 참여한 서포터즈단은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여성친화지표에 의한 모니터링과 마을 안전도를 조사하게 된다. 서포터

즈단 활동으로 만들어질 보고서와 안전지도는 안전마을 만들기를 위해 주민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북한음식 나눔한마당



전주YWCA 전북하나센터는 9월 23일(토) 전주대학교 한식문화홀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지역민, 유관기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북한음식 나눔한마당'을 열었다. 추석을 맞아 북한음식을 함께 조리하고 나눔으로써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의 맛을 넘어 그리움의 맛, 행복의 맛을 나누는 자리로 되었다.

중부

논산YWCA

이수정 간사

찾아가는 '엄마는 성평등교육'



논산YWCA는 4월부터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

해 '엄마는 성평등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8월과 9월에 걸쳐 찾아가는 '엄마는 성평등교육'을 진행했다. 28개 어린이집 1,100명 원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종이인형극, 노래, 체험활동으로 이뤄졌으며 '가사일 나도 할 수 있어요' 등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끌어내는 소재로 교육효과를 높였다.

대전YWCA

이진주 간사

Y-큰장날



9월 28일(목) 추석맞이 'Y-큰장날'을 대전YWCA 주차장에서 진행했다. 대전YWCA는 해마다 추석맞이 장날을 열어 주민들과 함께하며, 대청호 상류지역 농가를 살리기 위한 로컬푸드운동인 '대청호보따리' 사업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올해 Y-큰장날에서도 친환경 지역농산물을 비롯해 과일, 수제송편, 선물용품 등을 판매했으며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행복나팔아나바다장터'를 열었다. 수익금은 어려운 청소년을 돕는데 쓰인다.

세종YWCA

김영옥 간사

농산물우수관리 교육홍보



## 회원YWCA 소식 10월

농식품 스마트소비사업을 펼치고 있는 세종YWCA는 우리 농산물 우수관리(GAP) 제도를 교육하고 알리기 위해 9월 20일(수) GAP농가 팸투어를 진행했다. 연서면 농업기술센터에서 GAP인증 바로알기 교육을 한 뒤 GAP 인증농가인 장군면 예목원알밤농장을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GAP인증 받은 밤을 직접 줍고, 까보고, 밤으로 만든 각종 먹을거리를 즐기며 다양한 농장체험을 했다.

### 제천YWCA

김미경 팀장

#### EM발효액 및 EM천연비누 만들기



9월 7일(목)부터 9일(토)까지 열린 제11회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에서 EM 체험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제천시가 제천체육관 일대에서 연 이번 행사에서 제천YWCA는 EM발효액, EM천연비누 만들기 체험을 무료로 진행했다.

### 천안YWCA

정상란 간사

#### 자원·실무 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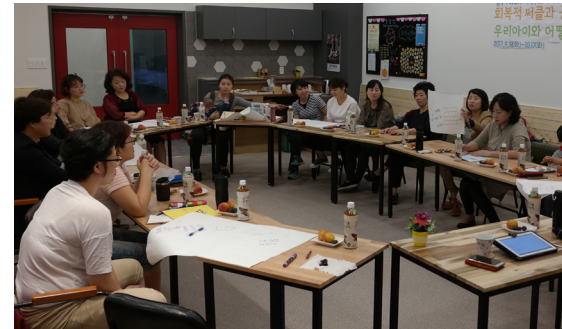
천안YWCA는 9월 26일(화)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가 함께하는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정숙 연합회 협력위원의 YWCA 정체성 강의에 이어 탈핵 정오기도, 2018-2019 정책과제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YWCA 활동

가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시 한 번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 청주YWCA

김광식 간사

#### 여성, 부모, 청년 기독교아카데미



청주YWCA가 9월 19일(화)부터 2017 기독교아카데미 '우리가 새날을 낳으리라'를 시작했다. 기독교여성아카데미는 여성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기(강호숙 전 총신대 교수), 기독교부모아카데미는 우리 아이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차홍도 목사·감리교 농촌선교훈련원장), 기독교청년아카데미는 청년이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가(이천진 한양대 교목실장, 백소영 이대 교수, 김덕영 희년함께 사무처장)라는 주제로 10월까지 매주 1회씩 진행된다.

### 충주YWCA

김세희 팀장

#### 돌봄종사자 체육대회



충주YWCA 고령자인재은행은 9월 16일(토) 충주시청 소년수련원에서 돌봄종사자들의 공동체의식 향상과 네트워크를 위한 미니 체육대회를 열었다. 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보냈으며, 친밀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회가 되었다.

## 한국YWCA 창립95주년기념

# 희망나눔콘서트



YOU ARE NOT ALONE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공동체에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위로와 응원이 필요한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 모금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2017.11.30(목) 오후 7시

**장소**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

**사회**



서울문화재단 대표  
주철환

**출연가수**



린



잔나비



카이

**예매문의**

02)774-9702~7  
www.ywca.or.kr

한국YWCA연합회

콘서트 후원계좌 농협 301-0171-5034-01 (사)한국YWCA연합회